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부안군은 부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판매환경대행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31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고객센터와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현장 방문에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단속내용은 상품권 부정수취·환전, 제한업종 영위행위, 부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 대우, 가족·지인 등을 통한 대리구매 등이다. 특히 부안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 결제 거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정읍시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2023년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50만원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제의대상을 뺀 3790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주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고창군 주민참여예산 현장모니터링단과 함께 2024년 주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26개 사업 중 역사와 문화는 품은 마을벽화거리 조성사업, 흥덕문화복지관 전광판 설치, 임대농기계 배송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을 상반기 모니터링 사업으로 선정하여 제안목적 달성여부, 사업 효과 및 공식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흥덕면 서삼마을에서 진행된 '역사와 문화를 품은 마을벽화거리 조성사업'은 주민설명회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사업이다. 위원들 역시 지역 문화유산은 담은 벽화가 완성될 경우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고장에 대한 애착심·자긍심 고취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고창=김영식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성황리

정읍시, 이만열 전 국가사면위원장에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여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이하 기념제)가 황토현전승일(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인 지난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개최됐다.

올해 기념제는 '동학농민혁명, 모두의 하늘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가기념일에 맞춰 국가기념식과 같은 날 열린 기념제는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싸워 최초로 승리한 황토현전승일을 알리고, 승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기념제는 다양한 연령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

해 전국의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참석해 사발품문 광장에 모여 민장 깃발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며 농민군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함바음 한뿔'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뒤이어 시민, 나라꽃물때, 청소년, 지역 문화예술인 511명이 함께 행진하고 플래시몹을 하는 '그날의 함성' 퍼포먼스를 통해 기념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 퍼포먼스에는 이학수 시장과 함께 '제3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단체장이 함께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실현시켰다.

이밖에도 어린이 합창대회, 청소년

토론회, 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전 연령대가 동학농민혁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청소년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또 '찬포배기'라고 불리는 이찬원과 '장구의 신' 박사진, 안치환, 더카리스 등이 성대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학수 시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동학농민군의 함성이 아직도 황토현전적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다"며 "억압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잊지 않고, 동학농민군의 혁명 정신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념제에서는 제14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만열 전 국가사면위원장에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장을 역임하고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어느 상보다도 보람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상을 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진들이 아직도 항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 연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후손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하기를 기원한다. 그 뜻을 담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 상금 2000만원을 기증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이하 기념제)가 황토현전승일(동학농민혁명국가기념일)인 지난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개최됐다.



고창군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초록물결 음악노트'라는 주제로 열린 제21회 고창청보리밭 축제'가 23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호응'

군, 관광객 38만여명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고창군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초록물결 음악노트'라는 주제로 열린 제21회 고창청보리밭 축제'가 23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축제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전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K-POP 댄스플레이 댄스 경연대회 △보물찾기 △어린이 보리밭 놀이터 운영 등 어린이와 젊은세대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23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약 38만명이 고창청보리밭을 찾아 경관농업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갔다. 이들 관광객중 상당수가 구시포·동호해수욕장, 선운산 도립공원, 모양성(고창읍성) 등 고창군 명소로 이동을 이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 고창군은 지역은행인 선운산농협의 협조를 통해 고창사랑상품권 현장 발행을 추진하여 관광객들의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고창사랑 상품권은 권역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되었으며 축제기간 중 10~5%의 추가 할인을 진행하는 식당·숙박업소의 참여로 개인 및 단체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축제장을 방문해 주신 군민과 관광객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고창군 자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힘이 되고 지역 발전에 큰 보탬이 됐다"며 "앞으로 이 어질 '복분자와 수박축제', '모양성제' 등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심원 하천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 성료

제철맛은 바지락 7톤 조기완판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지난 10일 '2024년 하전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고창 바지락 축제)'이 1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위원회에 따르면 사흘간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총 2만여 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다. 시장가 보다 30% 할인 판매해준 바지락 7톤이 완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하전장년회와 부녀회가 함께 운영하는 먹거리코너에서는 바지락 전, 회무침, 비빔밥, 칼국수, 라면 등 바지락 특화 요리를 선보여 호평을 얻었고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다양한 간식거리도 함께 제공하였다.

특히 기존의 갯벌체험, 바지락 무료 나눔·시식, 풍천장어 잡기뿐만 아니라 갯벌퍼레이드를 진행하여 체험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안겨주었고, 대형 연날리기 시연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도 함께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바지락 요리대회를 진행해 바지락을 가지고 다양한 창작요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지난 10일 '2024년 하전 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고창 바지락 축제)'이 1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리를 만들고 맛볼 수 있도록 했다. 물총쏘기, 조개구기, 조개키링, 바지락엽서 만들기 및 유아 놀이터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와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여 아이들을 비롯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작년과 달리 이번 축제에서는 고바라(고창바지락)캐릭터를 활용한 고바라 부채, 고바라 달고나, 고바라

달인형 등 관광객들에게 고창바지락을 다양하게 홍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권영주 하전어촌계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바지락축제에 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가겠으며, 하전바지락 축제가 고창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35기 신규 설치키로

정읍시에 공공 전기차 충전소가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민간 충전사업자와 공동참여해 지난 7일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10억7,000만원(국고 보조 5억4,000만원, 민간 5억3,000만원)을 확보해 29개소에 35기의 급속·완속 전기

차 충전시설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와 함께 공모에 참여한 이비이시스템은 직접 충전기를 제조·운영하는 전문기업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기차충전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 약 11억원 이상을 절감했고,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정읍에서 전기차를 구매해 마음껏 저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지상 이전 사업을 완료했고, 충전을 위한 주차 시 2시간까지 공영주차장 주차 비용을 면제하는 등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노후 하수관로 개선으로 지반 침하 예방

정읍시는 노후 하수관로를 개선해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노후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굴착보와 비굴착 보수 작업을 통해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굴착보수는 약 730m에 이르는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굴착

보수는 원형관과 수로암거의 보수로 약 128m의 원형관과 1605m의 수로암거가 대상이다. 설계 용역은 지난 2022년 11월에 완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1차분의 공사를 준공했다.

지난 3월에는 2차분의 공사를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4년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 SA 등급 달성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군의 공약이행완료율은 47.5%로 전국 평균 34.2%보다 13.2%p나 높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 2023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SA 등급은 군 단위 19곳을 포함해 81곳이다.

군은 체계적인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 공약이행 평가단을 운영하면서 매분기별 현장 평가 등을 실시해 공약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약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공약이행, 웹소통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엔 받은 공약이행 평가 결과가 공직자들과 군민 여러분이 함께 이룬 성과"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시청 홈페이지 공무원 성명 비공개 처리키로

정읍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김포시청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여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공무원들의 실명 공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무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과 시민 간의 소통 채널은 유지되며,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신상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권리 보호와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진

정읍시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3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자 44가구를 선정했다.

이외에도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

검 및 보수 사업에 300가구를 선정해 164가구를 완료했고, 잔여가구에 대해 전기시설 점검,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